



🌸 옛이야기 🌸 메추라기 공지

나이

· 유아(3~5세)

주제

· 목표: 남을 속이거나 욕심을 내면 결국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주제: 인과응보

핵심어

· 인과응보, 여우, 메추라기, 지혜, 욕심, 공지, 광주리

한국 문화

· 목표: 전통 생활 도구인 '광주리'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과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 요소: 광주리

한국어

· 목표: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어: 폴짝폴짝, 꾸벅꾸벅, 똑딱, 떼굴떼굴
· 표현: 폴짝폴짝 뛴다, 꾸벅꾸벅 졸았다, 밥 한 그릇을 똑딱 해치우다, 축구공이 떼굴떼굴 굴러간다.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딱딱! '메추라기 콩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위험에 빠진 적이 있나요? 오늘은 욕심 많은 여우에게 잡혔다가 지혜롭게 살아난 메추라기 이야기예요. 여우는 자기를 골탕 먹인 메추라기의 콩지를 물었어요. 하지만 메추라기는 지혜롭게 빠져나와 살았지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여우의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메추라기 콩지'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산속에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나?”

그때였어요. 메추라기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풀 위에 살포시 앉았어요.

“이때다!”

여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메추라기를 단숨에 잡았지요. 깜짝 놀란 메추라기가 발버둥을 치며 말했어요.

“여우야, 여우야! 나처럼 작은 새는 먹을 것도 없어. 날 놓아주면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해 줄게.”

“정말이지?”

메추라기 말에 여우는 신이 났어요.

“그럼! 나만 따라오라고.”

메추라기는 여우 곁에서 포르르 날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여우를 데려갔어요.

“여우야, 여우야! 넌 잠깐 풀숲에 숨어 있어.”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풀숲에 몰래 숨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잠시 후 어떤 아주머니가 커다란 광주리를 이고 지나갔어요. 메추라기는 아주머니 앞에 툭 내려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했지요.

“아니, 이건 잠에서 덜 깬 메추라기구나. 잡아다가 푹 삶아 먹으면 맛나겠다.”

아주머니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추라기는 폴짝폴짝 조금씩 도망갔어요. 아주머니도 이리저리 뛰며, 메추라기를 따라갔지요.

풀숲에 숨어 있던 여우는 아주머니가 메추라기를 따라 멀리 사라지자, 광주리에 들어 있던 밥을 푹딱 해치웠어요.

“여우야, 이제 좀 배가 부르니?”

다시 나타난 메추라기가 물었어요.

“응, 너무 많이 먹어서 숨이 찰 정도야.”

“그러면 소화가 쑥쑥 되게 내가 재미있는 걸 보여 줄게.”

“헤헤헤, 진짜?”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메추라기를 졸졸 따라갔어요.

“넌 아까처럼 저기 풀숲에 숨어 있어.”



🌸 이야기 들려주기

여우는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침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형제가 나타났어요. 메추라기는 앞서가는 형의 항아리에 살짝 앉았어요.

“어라? 메추라기잖아!”

동생은 항아리에 앉은 메추라기를 보고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메추라기는 재빨리 날아올랐지요.

“짹그랑!”

그 바람에 형의 항아리가 깨졌지 뭐예요.

“아니, 이 녀석이!”

“형님,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너도 한번 당해 봐라.”

화가 난 형은 동생의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동생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동생도 형이 자기 항아리를 깨트리자 화가 났어요. 둘은 한참을 티격태격 싸웠지요.

여우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여우야, 실컷 웃었으니 코끝이 찡하도록 눈물이 나는 일도 보여 줄까?”

“눈물 나는 일? 그게 뭔데?”

“땅을 파서 코만 살짝 내밀고 숨으면 돼.”

여우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땅을 팍팍 파서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구덩이 속에서 코만 빼죽 내밀었지요. 메추라기는 여우 코에 올라앉았어요.

마침 나무를 베던 나무꾼이 이 모습을 봤어요.

“메추라기 이놈! 구워 먹으면 맛나겠다.”

나무꾼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휘휘 휘둘렀어요. 바로 그때, 메추라기는 막대기를 피해 재빨리 날아올랐지요. 나무꾼이 휘두른 막대기는 여우 코를 정통으로 ‘딱’ 맞혔어요.

‘아이고, 아파라. 진짜 코끝이 찡하도록 눈물이 나네!’

여우는 나무꾼에게 들킬까 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꼭 참았지요.

“여우야, 여우야! 코끝이 찡한 맛이 어떠니?”

나무꾼이 사라지자, 메추라기가 포르르 날아와 말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뭐라고? 감히 나를 골탕 먹이다니!”

화가 난 여우는 메추라기를 한입에 덥석 물어 버렸지요.

“여우야, 여우야! 제발 살려줘!”

“날 골탕 먹여 놓고 살려달라니, 어림도 없지.”

“그럼,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줘. 부탁이야.”

메추라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나 대신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 줘. 죽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여우는 메추라기가 얄미웠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기로 했어요.

“엄마!”

여우가 소리치면서 입을 벌리자, 메추라기는 이때다 싶어 날아가려고 버둥거렸어요. 여우는 아차 하며, 재빨리 입을 앙다물어 버렸지요. 메추라기는 콩지가 물린 채로 있는 힘껏 날아올랐어요. 여우 입에는 콩지만 덜렁 남게 되었지요.

“여우야, 여우야! 내 콩지나 실컷 먹어라!”

메추라기는 여우를 놀리며 멀리 날아갔어요. 이때부터 메추라기 콩지가 짹아졌다고 해요.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배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잡았던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네, 메추라기였지요.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껍을 냈어요. 아주머니 앞에서 잠자는 척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폴짝폴짝' 도망갔지요. 그 사이 여우는 밥을 '뚝뚝' 해치우고, 재미있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렇게 한국어에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의태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태어를 찾아보아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배고픈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길 가던 아주머니를 꺾어내는데,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광주리였지요. 옛날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도, 밭일을 갈 때도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다녔어요. 광주리는 싸리나무나 대나무를 둥글게 엮어서 만들어요. 밥이나 채소, 떡 같은 것을 담아 나르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할 때 쓰지요. 한국 전통 생활 도구인 광주리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메추라기 콩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옛날, 배고픈 여우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메추라기의 껍데기에 계속 속았지요.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밥도 먹게 해 주고, 재미있는 일도 보여 주고, 심지어 눈물 나는 일까지 겪게 했어요. 하지만 여우는 화가 나서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메추라기는 마지막 순간에도 껍데기를 써서 도망쳤지만, 콩지가 여우에게 물려 짧아지고 말았어요. 작은 메추라기지만 아주 지혜로웠지요? 여러분도 메추라기처럼 어려운 일 앞에서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